

# 간성~대대리 우회 임시도로 사고위험 높아

S자형 급커브 운전자들 '아찔' ... 간성~거진 지난해 완공도 약속 못지켜

## 감리단 "간성~거진 올해 중 개통"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7호선 간성~현내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 간성을 우회도로로 구간에 설치된 임시도로가 90도에 가까운 급커브로 교통사고위험이 높아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간성을 우회도로에 설치된 임시도로는 간성에서 대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내기 위해 지난해 말 설치된 것으로, S자에 가까운 급 커브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해 말까지 간성~거진 구간을 완료하기 위해 임시도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50여일간 간성 교차로(구 황실사우나 뒤편)~대대리 북천 교차로간 교통통제까지 하기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주민들은 "시행처에서 지난해 간성을 상리교차로 신설공사를 위해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간성~거진 구간을 급방이라도 개통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개통도 못하고 임시도로를 사고 위험이 높게 만들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도청 도로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올해 중 간성~거진 구간까지 개통할 예정이며, 간성우회도로 구조상 현재 설치된 임시도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교통사고의 안전을 위해 안전 시설물과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지난해 만들어진 간성~대대리 우회도로의 임시도로가 S자 굴곡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운전자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다.

##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확정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서들

제출한 29개 사회단체 가운데 3개 단체를 제외한 2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확정내역	(금액 : 천원)	
단체명	2011년도 지원액	2012년도 확정액
계	307,661	285,903
새마을운동중앙회고성군지회	45,276	45,664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24,560	22,556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19,460	19,49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11,000	11,000
전물군경유족회 고성군지회	11,000	11,000
전물군경미망인회 고성군지회	11,000	11,000
무공수훈자회 고성군지회	11,000	11,000
대한노인회고성지회	15,880	16,840
고성군 문화원	24,300	24,300
고성군재향군인회	26,370	24,503
베트남참전유공 전우회고성지회	6,380	6,945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	11,000	11,000
JCI-KOREA- 고성	3,250	2,450
고성군지방 행정동우회	2,000	2,540
해병대전우회 고성군지회	3,000	3,060
고성재향경우회	1,800	1,850
미수복고성군민회	8,240	8,570
고엽제후유증 속초·고성 양양 연합지회	3,000	2,700
자연보호중앙연맹 고성군협의회	1,000	1,000
웰컴투고성협의회	6,000	6,000
(사)한국청소년 육성 고성지구회	4,000	3,000
의용소방대연합회	9,100	8,370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	2,250	1,250
재경고성군민회	14,475	14,500
대한민국특수임무 수행자회 강원도지부 고성인제지회	11,000	11,000
강원도 모범안전자 연합회 고성군지회	6,180	5,300
고성풍물패 한울	3,000	-
(사)강원고성갈래길 본부	-	-
달출그리며	-	-

## 산골 소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다

흘리분교 김다영 학생 제47회 졸업식...고성중 입학

매서운 칼바람이 유난히도 세차게 불고 눈이 아직 수북이 쌓여있는 해발 600m 진부령 끝자락에 위치한 흘리분교에서는 지난 9일 전교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졸업식이 열렸다.

전교생 7명을 포함해 광산초등학교 이태운 교장과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식은 동영상으로 시작된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장 및 상장수여, 학교장 회고사, 재학생 송시, 졸업생 답시, 졸업식 노래제창, 고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장수여에서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상, 고성군수상 등 유관기관 및 단체장 상과 피망작복반, 부녀회 등 마을주민들이 주는 상까지 10개가 넘는 상을 김다영 학생이 계속 서서 상을 받는 일반학교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재학생 송시와 답사에서 TV영상을 통해 재학생 6명 개개인이 김다영 학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어서 김다영 학생이 재학생 6명에게 답시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정형화된 이미지를 탈피했으며, 씩스러운 표정으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석한 관계자들



지난 9일 열린 흘리분교 제47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김다영 학생이 후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졸업식에서 유일한 졸업생인 김다영 학생은 "학창시절에는 몰랐는데 정들었던 학교와 학생들, 선생님들과 헤어진다 생각하니 가슴 뭉클해지고 아쉽다"며 "아빠, 엄마, 할머니, 마을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전교생이라고 해봤자 1·2·3학년 각 1명과 5학년 3명, 6학년 1명에 불과한 흘리분교는 이날 6학년 김다영 학생이 졸업하고 신입생도 없어서 전교생이 6명으로 줄어들었다.

김다영 학생의 답임을 맡았던 김종호 교사는 "다영이는 성격이 밝고 책임감이 강하고

책을 좋아하며, 상급생 만나니로서 솔선수범해 하급생인 동생들을 잘 챙기는 학생이었다"며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산골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니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된다"고 했다.

졸업식 내내 해맑게 웃던 김다영 학생은 영상에서 졸업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재학생들이 같이 따라 부르자 눈물을 글썽 거렸다. 김다영 학생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중학교에서 새로 만날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요리사가 꿈이라는 김다영 학생은 고성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원광연 기자